GM 5년간 지분 못 팔아… 10년간 1대 주주 유지

석달 만에 정상화 협상 마무리
군산 등 지역경제 어려움 여전해
국회 관련 예산안 조속 처리 당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협상이 모두 마무리됐다.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를 꺼내든 지 세 달여 만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GM에 7억5000만달러(한화 약 8000억원)를 새로 투입한다. GM 본사로부터는 GM 아태지역 본부 유치와 10년간 1대 주주 유지, 비토권 등을 약속받았다.

한국GM으로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일단 원칙은 지켜냈다는 평가다.

◆ 혈세 8000억원 투입 vs 한국GM 10년 존속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총 투입 자금은 71억5000만달러다. 이 중 GM은 64억달러(6조9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과거부실해소(28억불)	(GM) 기존 대출금 28억불 출자 전환
경쟁력 제고 (43.5억불)	(GM) ❶(생산성) 설비투자 등 28억불 지원,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❷(수익성) 경쟁력 있는 신차 2종 배정, 인건비 절감, 본사 대출금 금리 인 하 , 생산비용 절감 노력 ❸(지역거점(한국에 아태 지역 본부 설치
	(산은) 2대 주주로서 7.5억불 지원(우선주 출자) GM의 지분매각 제한, 비토권 등 견제장치 확보
정부지원	(외투지정) 법적 요건 충족時 지원
부품업체 및 지역 지원	(부품업체) 금융애로 해소 지원 + R&D 사업 신설 추진 (지역) 지역대책 차질없이 추진 + 군산공장 활용방안 모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산업은행의 신규 투자에 대해 국민의 세금 문제로 얘기하지만 한국GM에 투입되는 자금의 10% 정도"라며 "다른 기업이 그(GM이 약속한 64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할 때 정부의 반응을 예상하면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려 8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심이 쏠렸던 '먹튀' 방지안은 GM 아태본부의 한국 유치와 10년 간 1대 주주 유지, 비토권 회복 등이다.

GM은 오는 2023년까지 5년 간은 한국GM 지분을 팔 수 없으며, 이후 2028년까지 5년 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유지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M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와 함께 단지 10년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후까지도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GM 아태본부의 한국 이전은 구체적 시기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 구조조정 원칙은 지켰다

중견조선사, 금호타이어에 이어 한국GM까지 당장 생사기로에 섰던 기업들은 고비를 넘겼다. 정부 지원은 모두 노사합의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제로 이뤄지면서 큰 틀에서 구조조정 원칙은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한국GM 역시 인력구조조정과 인건·복리후생비 절감 등 노사의 양보가 있었고, 한국GM에 대한 GM의 대출금 28억 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해 과거 부실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다른 특혜를 주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에 GM 측이 제출한 투자계획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향후 다시 제출하면 법령에 따라 외투기업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는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군산 등 지역문제는 여전

한국GM에 대한 경영정상화는 물꼬가 트였지만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은 여전하다.

특히 군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대책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면서도 가장 아쉬운 점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라며 "해당 지역에 새로운 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국회 등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 산업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며,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일문일답

"먹튀 방지책, 10년 후까지도 고려… '고통분담' 구조조정 원칙 통해"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본부(이하 아태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상징적 의미'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군산 등 구조조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대체보완재를 찾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김 부총리 및 관계기관 장관과의 일문일답.

—아태지역 본부의 유치, 규모나 시기는.

"아직 구체적 시기와 규모가 공개되진 않았다. 아태지역 본부는 절대적 심사에 대한 기획이나 심사 물품에 대한 개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GM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른바 '먹튀 방지책'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한국GM에 총 71억5000만 달러(7조8000억원)의 거액을 투입하는 만큼 리스크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까지도 생각했다. 아태본부를 한국에 가져오고 GM에 거액을 투입하는 등의 방안은 한국 정부와 GM이 계속 윈윈할 수 있는 측면에서 문제없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해해달라."

—GM 실사 결과 수출물량, 인건비 외에 다른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나. 향후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나.

"큰 테두리에서 이상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다. 회계법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나온 결과라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 현재 매출 원가율(93%)이 경쟁사들보다 높지만, 여러 가지 원가 구조가 개선되면 향후 3~5년 이내 경쟁사 대비 매출 원가가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이번 협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서 GM이 나간다든지 등의 나쁜 시나리오로 갔을 때와 비교하면 좋겠다. GM과 관련된 인원은 15만2000명이고 자동차 산업, 경제전반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번 협상은 산업생산,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전반에 거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3대 구조조정 원칙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제시했는데, 관련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에 감사하다. 사측은 물론이고 노측에서도 인건비 동결 등 뼈를 깎는 고통으로 참여해줬다. 산업은행의 7.5억불 지원에 대한 세금 문제도 제기됐는데, 산은의 지원은 전체 투입 자금의 10% 정도로 다른 기업이 신규 투자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봐야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www.yonhapnews.co.kr

지난해 국내외 뉴스가 한권에…

'연합연감 2018년판' 출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18년판'이 5월 2일 출간됐습니다.

2017년 한 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지방, 세계 등 각 분야 주요 뉴스와 각종 통계, 도표 등을 정리해 수록한 이 자료집은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150여 명의 필진이 참여했습니다.

초점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혁명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을 다룬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탄생',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과 국정농단 재판,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일주일 연기, 사드 배치와 중국 보복에 따른 한중 갈등과 봉합,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원전 5 · 6호기 건설 재개 등을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본문에는 분야별 뉴스를 사진과 그래픽, 표 등을 곁들여 체계적으로 편집하는 한편, 중요 사건 · 사고를 일지로 요약 정리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또 각국 현황에서는 국가별 지도와 면적 · 인구 · 언어 등 개요에 더해 최근 상황까지 담았습니다.

자료 편에선 통계, 일람, 주요 연설 · 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역대 정부기관장, 문재인 정부 5년간 설계도라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 등 다양한 자료를 별도로 엮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와 현황을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조선중앙통신사의 뉴스와 조선중앙TV 보도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을 지도와 함께 나열한 북한 시 · 도 지리와 김정은 신년사를 비롯한 주요 연설 및 발표문, 북한 10대 뉴스, 일지, 연표 및 북한 주요 인물들의 학력과 경력 등을 소개해 자료 가치를 높였습니다.

▪ 4×6배판, 총 1,416쪽, 양장본
▪ 가격 : 18만원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구입 문의 서울(02)398-3593~4 경기(031)238-2222 경기북 · 강원(031)569-7788 인천(032)441-2007 대전 · 충청(042)521-9705 광주(062)264-5777 경남(055)281-0010 부산 · 울산(051)441-7400 대구(053)355-3800